

“北에 있는 아내·딸 보고픈데...살아 생전 만날 수 있을런지...”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 대모' 신조아(여·60)씨와 북한이탈주민 장석진(57)씨 부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시베리아를 유랑한 고려인 아내와 북한의 별목공 출신 남편은 서로 의지하면서 고려인들의 광주 정착을 돕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탈북자·고려인 부부의 애뜻한 추석

광주 광산구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장석진(57)씨에게겐 두 명의 아내가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두고 온 이성실(50), 그리고 지난 2007년 광주에서 식을 올린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 신조아(60).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보낸 별목공 출신인 장씨는 시베리아 별관을 10년간 유랑하다 지난 2006년 4월 입국했다. 6개월간의 하나원 교육을 끝마칠 때쯤 정부는 장씨에게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했다. 그 후 몇 달 뒤 거짓말처럼 과거 유랑시절 만났던 고려인 신조아와 재회했다.

◇고려인 대모와의 만남은 고려인 마을을 만들고=프로포즈는 3살 연상인 신조아씨가 먼저 했다. 살림은 불과 한두 달 만에 합쳐졌다. 장씨도 정불일 곳이 마땅찮았던 데다 러시아 별목공 시절부터 안면이 있던 신씨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7년 3월 부부가 새 가정을 꾸리면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 신씨의 국내 체류 신분도 안정됐다. 신씨가 이전영 목사와 함께 고려인 정착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지금은 신씨가 '고려인 대모'로 불리며 광주에 거주하는 3000명 남짓의 고려인을 돌보고 있지만, 신씨에게도 2000년대 초반 한국 생활은 벅차기만 했다. 임금 체불은 예사였다.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며 찾아간 이전영 목사와의 인연으로 신씨는 고려인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새 삶의 터전으로 광주를 찾은 고려인은 채 50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남공단이 인접해 일자리가 넉넉한

20년전 러서 별목하다 탈북

10년간 떠돌다 2006년 한국행

유랑시절 만났던 신씨와 재회

신의주에 있는 아내와 딸

생사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데다 신씨와 이 목사가 고려인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소식에 매년 수백명의 고려인이 몰려들었고 현재는 경기도 안산에 이어 광주가 고려인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히게 됐다.

신씨는 자신이 새 삶을 꾸리고 같은 처지의 고려인 수 천 명이 조국 광주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남편 장씨의 한결같은 외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몸이 불편한 신씨를 보살피며 고려인 돕는 활동을 지지해주고 전국을 떠돌며 생활비를 벌여준 남편이 있었기에 지금의 고려인 마을이 자리잡게 됐다. 신씨는 말한다. 그러나 장씨는 “아내가 있었기에 남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탈북자인 탓에) 정불일 데도 없었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아내와의 만남, 고려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北)에 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북한을 떠난 지 20년, 광주에 터를 잡고 산지 10년. 신씨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지만 장씨도 어쩔 수 없는 ‘이산가족’이다.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딸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그는 지난 1996년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이 파견한 별목공으로 러시아로 가는 길에 몸을 실

은 뒤 여대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다. 3년 전 브로커가 주선한 전화통화를 끝으로 소식도 두절돼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을 추석에도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연일 신문과 TV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장씨를 비롯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겐 북에 두고 온 가족과의 만남은 연감생심이다.

장씨는 “딸과 아내 얼굴을 다시 한 번 보는 게 소원인데, 이산가족과 달리 우리 탈북자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 러시아에서 꼬박 3년간 별목공 노릇을 한 뒤 1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신의주에 있는 고향집에 간 첫날 탈북을 결심했다. 열심히 일해 국가에 외화를 안겨주고 가족도 배불리 먹일 수 있던 약속과 달리 비쩍 마른 아내와 딸을 마주하면서다.

휴가를 마치고 별목현장으로 간 그는 북한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러시아 땅에서 돈을 벌며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보낼 생활비는 커녕 별목현장을 이탈한 ‘횡감’을 대신해 지급할 돈을 모으는 것도 녹록지 않아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고려인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장씨는 3년 전 아내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

“당신 딸이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도 낳았어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건강하세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올까요.” 당시 그의 아내는 남편과의 통화를 위해 일주일간 국경지대까지 달려왔다고 한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이산가족 상봉 기다리는 광주 북구 두암동 김인성 할머니

“막내가 벌써 71살... 보고 싶단 말밖에...”

북 가족 생각에 눈물만...

2차명단 포함...꼭 만나길

꿈만 같았다. 65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북에 두고온 부모님과 동생 3명의 얼굴이 그려졌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건강진단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았지만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혈압이 높아져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했다. 평안남도 평양시 대타령리 481번지 99-50.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곳이 김인성(83·광주 북구 두암동) 할머니의 고향이다.

김 할머니는 지난 10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다음달 20~26일 금강산면회에서 예정된 제20차 대면상봉 1차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지난 1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한 2차 후보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그녀는 가장 먼저 75년도 넘어 이제는 주름지고 갈라진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집안 사진관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최종 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동생들과 만나면 가장 먼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여러 장 복사를 했다. 손바닥 절반만한 오래된 흑백사진은 김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가족 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하얀 한복을 맡금하게 차려입은 아버지와 맏이였던 김 할머니, 까까머리 둘째가 75년 전 모습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사진을 남한에 와서 보게 될 줄 몰랐지요. 아버지가 어느 날 동생과 제 손을 잡고 사진이나 찍으러 가자고 하셔서 고향에 있던 서성사진관에서 촬영을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1~2학년 때쯤이었으니깐 6·25 전쟁이 터지기 10여 년 전이었죠. 그런데 10년 뒤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고모님 댁에 가니깐 이 사진이 있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1950년 12월4일, 김 할머니는 그날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18살의 김 할머니는 그날 교회에 갔다가 부랴부랴 피난을 가야 한다는 말에 아버지, 남동생, 사촌동생과 함께 피난 길에 나섰다. 그때만 해도 이틀만 서울로 내려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대동강 앞에서 통금시간에 걸려 결국 강을 건너지 못했다. 다른 가족들은 곧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택에서 만난 김인성 할머니가 딸 유은희씨와 함께 사진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 집으로 돌아갔는데 김 할머니는 사촌과 함께 교회 목사님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렇게 평양에서 550리를 걸어 영등포에 도착했어요. 좁고 무서웠어요. 영등포서 집차를 얻어타고 대구 고모님 댁으로 향했죠. 대동강 앞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너희 고모부가 대구양말공장의 차종화다’라고 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서야 겨우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모님이 이 사진을 주셨어요.”

김 할머니는 고모 집에서 8명의 사촌과 함께 생활했다.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자 교사인 남편을 만나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았고 42년전 광주에 정착했다. 고모는 10여 년 전에,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귀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깐 제 고향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평양 시내에는 단속이 심해서 소식도 전해 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생들을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묻고 싶어요. 동생 필성이, 연성이, 호성이 살아 있을지는도 모르겠습니다. 막내(호성)가 해방둥이라 지금 살아 있으면 71살이 됐을 겁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을 것 같아요. 꼭 만나고 싶어요.”

광주·전남에서는 김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의 이름이 북측과 교환한 ‘생사확인 의뢰서 명단’에 올랐다. 최종 명단 100명은 다음달 8일 확정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저소득 근로자 이야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시]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의 연금보험료(9%, 90,000원)
중에서 50%(45,000원)는 국가가 지원

근로자의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9%)

90,000원

국가(50%)

45,000원

근로자(25%)

22,500원

사용자(25%)

22,500원



지원신청?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신청방법

온라인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서면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우편, 방문, 팩스 가능)

제출서류

신규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이 어렵다면?

공단에 전화 주십시오.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월보수 100만원 기준 연간 지원액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받아요

국민연금

540,000원

국고지원금 270,000원

연간 270,000원을 지원